

01. ④ 02. ③ 03. ① 04. ⑤ 05. ② 06. ③ 07. ④ 08. ⑤ 09. ③ 10. ⑤
 11. ④ 12. ② 13. ③ 14. ① 15. ② 16. ① 17. ① 18. ④ 19. ③ 20. ④

1. 에픽테토스가 강조한 삶의 태도 파악

정답 해설 : 가상 편지를 쓴 고대 서양 사상가는 에픽테토스이다. 에픽테토스는 이성을 통해 자연을 지배하는 보편적 명령을 파악하고 이를 따르는 삶이 이상적 삶이라고 보았다. 또한 그는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운명 지어진 것으로 바꿀 수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다고 보고,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변화시키기보다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에픽테토스는 행복한 삶은 감각적 쾌락의 추구가 아니라 이성에 따른 삶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 ② 에픽테토스에게 신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로서의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자연을 의미한다.
- ③ 공리의 원리에 기초하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 대표 사상가는 벤담이다.
- ⑤ 각 개인을 진위 판단의 기준으로 보고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라고 주장한 사상가는 프로타고라스이다.

2.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쿠로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아리스토텔레스이고, 을은 에피쿠로스이다. 에피쿠로스는 명예욕을 비필수적인 욕구라고 보고, 명예욕과 같은 비필수적인 욕구는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통이 유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오히려 비필수적인 욕구를 충족하려면 고통과 불안이 발생한다고 보았다(ㄷ).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인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라고 보았다. 에피쿠로스는 행복한 삶을 위해 이성으로써 욕구를 분별하고 절제하는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ㄹ). **정답 ③**

[오답피하기]

- ㄱ.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실천적 지혜는 인간의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적인 덕이다.
- ㄴ.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지적인 덕은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덕이고, 도덕적인 덕은 영혼의 비이성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감정이나 욕구 부분과 관련된 덕으로 중용의 반복적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덕이다.

3. 왕수인과 주희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왕수인이고, 을은 주희이다. 왕수인은 사욕을 제거하고 천리(天理)

로서의 양지(良知)를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발휘하여 행위 주체의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왕수인은 성인(聖人)과 백성 모두 천리(天理)로서의 양지를 지니고 태어난다고 보았다.
- ③ 주희에 따르면 격물(格物)은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탐구하여 앎을 극진히 하는 것이 본연지성을 바로잡는 일이 아니다.
- ④ 주희는 먼저 알아야 실천할 수 있기에 앎이 먼저이고 실천이 나중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앎과 실천의 중요성을 따지자면 실천이 앎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 ⑤ 마음 바깥에 이치가 없고 마음 바깥에 사물이 없다는 것은 주희가 아니라 왕수인만의 입장이다.

4. 석가모니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석가모니의 주장이다. 석가모니는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괴로움일 수밖에 없으며, 현상 세계의 모든 존재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괴로움이 생겨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석가모니에 따르면 인간은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석가모니는 모든 존재와 현상은 끊임없이 생멸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영원한 본성을 가진 존재는 없으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없다고 보았다.
- ② 석가모니는 모든 것들은 무상하며, 무상한 것들은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 ③ 석가모니는 인연(因緣)에 의해 생성된 모든 현상은 끊임없이 생멸하고 변화한다고 보았다.
- ④ 석가모니는 인간이 오온(五蘊)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라고 주장할 만한 고정된 혹은 불변하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5. 아퀴나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아퀴나스의 주장이다. 아퀴나스는 자연법이 영원법에 기초하듯 실정법은 자연법에 기초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아퀴나스에 따르면 실정법과 자연법은 영원법에 근거해야 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아퀴나스에 따르면 자연법은 인간의 성향에 의해 구체화되는 법이며,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동의할 수밖에 없고 지켜야 하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기에 가변적이지 않다.
- ③ 아퀴나스는 신앙의 영역과 이성의 영역이 서로 구분되지만 두 영역은 양립 가능하다고 보았다.
- ④ 아퀴나스는 인간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최고의 행복은 신과 하나가 되는 것으로 신

의 은총에 의해 내세에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⑤ 아퀴나스에 따르면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c)에 의해 인식된 영원법이다. 따라서 아퀴나스는 인간이 자연법을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6. 이황과 이이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이황이고, 을은 이이다. 이이는 도덕 감정과 일반 감정은 동일한 연원에서 유래한다고 보았다^(c). 이황과 이이는 마음과 몸을 주재하는 공부로서 경^(敬)의 실천을 중시했다^(c). **정답 ③**

[오답피하기]

- ㄱ. 이황은 사단을 순선한 이가 발하고 기가 이를 따른 감정이라고 보았다.
- ㄴ. 이황은 사단과 칠정 모두 감정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사단을 선한 이치^[理]라고 보지 않았다.

7. 정약용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정약용은 사덕^(四德)을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좋아하는 기호, 즉 영지의 기호를 실천하여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이황과 이이는 사덕을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정약용은 사덕이 성에 내재한 사단을 파악하는 단서라고 보지 않았다. 정약용에 따르면 사덕은 사단을 확충한 것이다.
- ② 정약용은 사단을 인성^(人性)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 ③ 정약용에 따르면 사단은 인간이 타고난 선한 마음이고, 형구의 기호는 단 것을 좋아하고 쓴 것을 싫어하는 것과 같은 육체의 기호로 인간과 동물이 가지고 있는 기호이다.
- ⑤ 정약용은 인간이 영지의 기호를 지녔다고 보지만, 선이나 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지권을 지닌다고 보았다.

8. 혜능과 지눌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혜능이고, 을은 지눌이다. 혜능과 지눌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혜능은 경전에 얽매이는 것을 비판하면서, 경전 공부를 거치지 않고서도 자신의 마음을 직접 보고 깨달을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혜능은 모든 중생에게 불성^(佛性)이 있으며, 자신의 본성이 곧 불성임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지눌은 혜능과 마찬가지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가르침을 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지눌은 단박에 진리를 깨친 뒤에 나쁜 습기(習氣)를 차차 소멸시켜 나가는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9. 칸트와 로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칸트이고, 을은 로스이다. 로스는 하나의 의무는 또 다른 의무와 같 등하기 전까지는 실제 의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칸트는 행복이 도덕의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도덕과 행복이 양립 가능하다고 보고,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가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칸트는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는 모두 자율적이지만, 의무에 맞는 행위 모두가 자율적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 ④ 로스는 조건부 의무들 간의 우선순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 ⑤ 로스는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지켜야 하는 절대적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10. 위정척사 사상, 동학, 동도서기론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위정척사 사상가 최익현, 을은 동학 사상가 최제우, 병은 동도서기론을 주장한 신기선이다. 동도서기론은 성리학적 가치와 서양의 기술이 조화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위정척사 사상은 조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동학은 만민 평등사상을 고취하여 외세에 대응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② 동학은 모든 유교적 가치를 배척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
- ③ 동학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보고 새 세상을 열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④ 동도서기론은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동양의 정신은 지켜야 한다고 보았다.

11. 아리스토텔레스 국가관 이해

정답 해설 : 그림의 강연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공동체 중에 최선의 단계를 국가로 보고, 국가는 최고의 좋음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부락과 같은 인간 공동체는 good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자급자족적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구성원들이 훌륭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포괄적인 도덕 공동체라고 보았다.
-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언어 능력은 인간 고유의 특성이라고 보았다.
-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한다고 보고, 가족이나 부락과 같은 공동체처럼 국가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 형성된 것이라고 보았다.

12. 순자와 맹자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순자이고, 을은 맹자이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보고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선하게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맹자는 인간은 선한 본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따라서 순자는 긍정, 맹자는 부정으로 대답할 질문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순자와 맹자는 인간이 사사로운 이익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순자와 맹자가 긍정으로 대답할 질문이다.
- ③ 순자는 예를 고대 성왕(聖王)이 제정한 외면적인 사회 규범이라고 보았다. 순자가 부정으로 대답할 질문이다.
- ④ 순자와 맹자는 백성을 위한 도덕적인 공동체를 지향하였다. 순자와 맹자가 긍정으로 대답할 질문이다.
- ⑤ 순자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타고난 성(性)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본성을 변화시킨 결과라고 보았다. 순자가 부정으로 대답할 질문이다.

13. 노자와 장자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노자이고, 을은 장자이다. 장자는 사람은 타고난 대로, 즉 자연스럽게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노자는 하늘과 땅이 어질다고 보지 않았다.
- ② 노자는 도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고 보았다.
- ④ 장자는 절대 자유에 도달하기 위해 일체의 분별과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보았다.
- ⑤ 노자와 장자는 예법을 인위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14. 벤담과 밀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벤담이고, 을은 밀이다. 벤담과 밀은 유용성의 원리가 도덕적 의무의 원리라고 보았다(ㄱ). 벤담과 밀은 어떤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평가하는 핵심 근거는 행위의 동기가 아니라 행위의 결과라고 보았다(ㄴ). **정답 ①**

[오답피하기]

- ㄷ. 벤담은 쾌락에 질적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반면에 밀은 쾌락에 질적 차이가 있으며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질적으로 고상한 쾌락을 선호한다고 보았다.
- ㄹ. 벤담과 밀은 사익과 공익은 조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15. 벌린과 페티트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소극적 자유를 강조한 벌린이고, 을은 공화주의자 페티트이다. 벌린은 간섭의 부재를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라고 보고 간섭받지 않을 영역과 자유의 영역은 비례한다고 보았다. 반면에 페티트는 외부의 간섭과 방해가 없는

소극적 자유만으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보고, 자의적 지배가 없는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진정한 의미의 자유라고 보았다. 따라서 벌린은 예, 페팅은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이다(ㄱ). 페팅은 자유의 실현이 법에 의한 지배로 인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페팅이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다(ㄴ).

정답 ②

[오답피하기]

ㄴ. 페팅은 자의적 지배에 의한 간섭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페팅이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다.

ㄷ. 벌린은 ‘~로부터의 자유’는 간섭의 부재를 통해 보장되는 자유라고 보았다. 벌린이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이다.

16. 플라톤과 토마스 모어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플라톤이고, 을은 토마스 모어이다. 플라톤은 방위자와 생산자는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여 지혜의 덕을 갖춘 통치자를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플라톤은 오랜 교육을 통해 지혜의 덕을 갖춘 철학자가 통치해야 이상 국가인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토마스 모어의 이상 국가는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평등하다.

④ 토마스 모어는 이상 국가의 시민은 여섯 시간 노동한다고 보았다.

⑤ 플라톤은 이상 국가에서 생산자에게는 사유 재산이 허용된다고 보았다. 반면에 토마스 모어는 이상 국가에서 소유와 생산에 있어 평등하다고 보았다.

17. 스피노자와 흄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스피노자이고, 을은 흄이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인간은 자유 의지가 없지만, 이성을 계발하고 이성이 인도하는 삶을 통해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스피노자는 신은 물론 인간도 필연적인 자연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

③ 흄에 따르면 선악은 쾌와 불쾌의 감정으로 느껴지는 것일 뿐 객관적 실재가 아니다.

④ 흄에 따르면 이성은 선악 구별의 원천과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없다.

⑤ 스피노자는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근거를 이성이라고 보았다. 반면 흄은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근거를 감정이라고 보았다.

18. 마르크스와 스미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마르크스이고, 을은 스미스이다. 스미스는 자유방임주의 입장에서 국가의 역할은 국방과 치안, 공공 토목 사업 등 최소한의 영역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해방이 인류 보편의 해방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 ② 마르크스는 이상 사회인 공산 사회는 인간이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사회라고 보았다.
- ③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에 의해 사익들은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마르크스는 사적 소유제 폐지를 통해 인간 사회의 공동 이익을 증진해야 한다고 보았다.

19. 루소와 홉스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루소이고, 을은 홉스이다. 루소와 홉스는 주권자가 법을 제정할 권한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고 보았다(ㄴ). 루소와 홉스는 국가 형성의 근거와 주권의 근거를 인민의 동의라고 보았다(ㄷ). 정답 ③

[오답피하기]

- ㄱ. 루소와 홉스는 국가를 계약 주체들의 의지가 하나로 결합된 산물이라고 보았다.
- ㄴ. 루소와 홉스는 인간이 사회 계약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도 생명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20. 키르케고르와 사르트르 사상의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키르케고르이고, 을은 사르트르이다. 사르트르는 인간을 본질이 주어진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존재라고 보았다(ㄴ). 키르케고르와 사르트르는 인간의 불안은 참된 실존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ㄷ). 정답 ④

[오답피하기]

- ㄱ.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참된 실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보고, 인간은 신의 존재 없이 진정한 실존을 찾을 수 없다고 보았다.
- ㄷ. 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자유 자체를 선택하거나 자유 자체를 거부하고 자유롭지 않음을 선택할 수 없다고 보았다.